

# 광주, 대통령상 '7관왕'...시민 체감 정책 '전국 으뜸'

## 중앙부처 평가서 총리상·장관급 이상 등 68건 수상 청년·돌봄 등 전 분야 성과...‘기회도시 광주’ 입증

광주시가 올 한 해 중앙부처 등 각종 평가에서 대통령상 7관왕에 오르는 등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대통령상 7건에 이어 국무총리상 2건, 장관급 이상 수상 21건 등 총 68건의 기관 표창을 수상. 시정 전반의 행정역량과 정책 성과를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 △ 청년·교육 분야

광주시는 일학습병행 사업, 근로자 주거비 지원, 청년드림은행 등 청년들의 현실적 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생애주기적 청

년정책을 추진했다. 이같은 청년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종합평가에서 우수 기관에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계획 및 체계 구축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대규모 국비를 확보. 지역·대학·산업이 연계된 인재양성 체계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 △ 복지·돌봄 분야

광주시 돌봄정책은 전국 지자체와 중앙 정부의 벤치마킹과 정책연구 대상으로 주

목받았다. 대표 사업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내년 3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표준모델이 됐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정책대상 대상, 지역복지사업 평가 최우수,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우수 지자체 선정 등 돌봄·복지 분야에서 연이은 성과를 거뒀다.

특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 인구정책 유공 국무총리 표창, 보육사업 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을 생애주기별 총합한 돌봄 정책이 실질적인 평가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 △ 안전·재난 분야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은 결과, 안전한국훈련과 비상대비훈련, 긴급구조 종합훈련 우수기관 등 안전·재난훈련 분

야에서만 대통령 표창을 3개나 획득했다. 이밖에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국민안전교육 최우수기관,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소방정책 학술대회, 화재안전대책 평가 등 각종 안전·재난 분야 평가에서도 상위 성적을 기록하며 현장 대응 역량을 입증했다.

### △ 환경·기후 분야

광주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 참여와 인식 전환을 중심으로 한 환경정책을 꾸준히 실시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탄소중립포인트제는 2025년 9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내 최초 정책 인증을 받았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세에 비율은 58%로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사례로 선정됐

다. 이와 함께 수도시설·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운영 평가 최우수, 지하수 보전관리 우수 지자체 선정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에서도 안정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 △ 행정·혁신 분야

행정 분야에서는 협업과 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행정혁신을 지속 추진했다. AI 당지기,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산단노동자 조식 지원 등은 정부 정책으로 채택되거나 벤치마킹 대상이 돼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등급, 정부합동 평가 특·광역시 상위권, 시·도지사 공약 이행 평가 최우수(SA) 등 주요 행정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로 돌아왔다.

또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

상, 디지털정부 발전유공 대통령 표창, 지역통계 우수지자체 최우수 수상 등 데이터 기반 행정과 적극행정이 시정 전반에 정착됐음을 입증했다.

광주시는 수상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완성도를 더욱 높이고, 협업과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지방행정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병철 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의 성과는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시정 전반에서 행정혁신의 결실을 맺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책으로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2025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회의. 광주 동구는 29일 상환실에서 임택 동구청장과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중심 스마트 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를 열고 2025년 동구 건강도시사업 성과보고 및 2026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사진제공=광주시 동구

## 이개호 의원, '민생의료 패키지법' 발의 "필수의료 인프라 구축...농어촌 주민 건강권 시수"

무너져가는 지방 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고,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사진)은 29일 보건소 등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 개선과 지역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을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도시와 농촌 간 의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보건소 등 보건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는 핵심 국가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해당 사업들의 집행률을 살펴보면 시설개선사업 40.6%, 신·증축 사업 34.3%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현행법상 관련 예산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역자율 계정'으로 한



정돼 있어, 지자체의 포괄적 예산 구조 속에서 우선순위에 밀려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은 지역자율 계정으로 한정되었던 전출금 범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제로 확대해, 재원이 지역자율 계정과 지역지원 계정에서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직접 지원하는 '지역지원계정' 세출 항목에 △의료 취약지역의 응급의료체계 구축 △지역 의료인력 및 의료기관의 육성·확충 사업 등을 명시했다. 이성오 기자

## 전남도-시군, 고향사랑기부금 200억 돌파 '전국 최초'

### 광역·기초 역할 분담 협업...방향 설정·현장 홍보 유기적 추진 소아과 개원·마을 공동 빨래방 등 생활밀착형 기부사업 실현

전남도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통해 전국 최초로 누적 기부금 200억원을 달성했다.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역할을 나눠 제도를 공동 운영한 결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상생 모델로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남도는 22개 시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힘을 모은 결과, 전국에서 처음으로 누적 기부금 2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도와 시군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공동 목표로 설정하고, 광역은 제도 운영 방향과 홍보를 총괄하고 기초단체는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과 현장 중심 홍보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한 점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전남도와 시군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동 홍보를 비롯해 향후

회 연계 기부 독려, 지역 축제와 각종 행사 현장 캠페인을 함께 추진하며 기부 참여 저변을 꾸준히 넓혀 왔다.

이 과정에서 기부금 사용 방향과 사업 내용을 투명하게 알리며 기부자의 신뢰를 높였고,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과 지역을 잇는 상생 제도로 자리 잡는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모금된 기부금은 주민의 삶에 직접 닿는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남도는 고령화와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을 공동 빨래방 운영'을 지원하며,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있다. 주민 수요를 반영한 생활 밀착형 사업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금이 일상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군 단위에서도 성과가 이어지고 있

다. 곡성군은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65년 만에 첫 상시 소아과를 개원하며 지역 의료 공백 해소의 전기를 마련했고, 완도군은 '완도군BC 유소년 야구단' 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체육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도와 시군이 함께 기획하고 실행한 이러한 사업들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협력 모델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담례품 분야에서도 역할 분담이 뚜렷했다. 전남도는 담례품 품질 관리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시군은 지역 농·수·축 산물은 물론 체험형·스토리형 담례품을 적극 발굴해 기부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그 결과 전남은 전국 최고 수준의 담례품 경쟁력을 유지하며 기부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전남은 고향사랑기부금 200억원 모금이라는 기록을 세웠고, 도와 시군은 3년 연속 전국 1위 유지를 목표로 막바지 모금 분위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남은 기간 기부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기부금이 주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시군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고미경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성과는 1300만 호남 향우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일회성 기부에 그치지 않고 생활인구·관계인구 확대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지역 상생 제도로 자리 잡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담례품이 제공된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기부금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장동혁, 호남 1박2일 방문 '외연확장' 시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아 본격적인 외연 확장에 나섰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장 대표의 호남행은 지난달 5일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 이후 50여 일 만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3선의 이양수 의원이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장 대표는 오후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찾아 홍보관과 태양광 발전시설을 시찰하고 "입법과 예산은 물론, 전력망 구

축과 특구 지정, 그리고 상상 이상의 파격적인 규제 허파까지 당의 모든 역량 동원해서 전폭적으로 돕겠다"며 "호남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도약"이라고 강조했다.

30일에는 전북 새만금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원불교 지도자를 예방할 예정이다.

장 대표의 호남 방문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 시도로 해석된다.

임기 중 매일 호남을 방문하겠다고 공약한 대로 이른바 '월간 호남' 구상 실천이다.

당장 호남 득표율을 끌어올리기보다 수도권 중도층과 호남 출신 유권자에게까지 지지를 넓히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도, 2028년까지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

### 2014년 첫 인증 후 14년 연속 유지

전남도는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 심사를 통과해 향후 3년간 인증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전남도는 지난 2014년 처음 가족친화인증증을 받았으며, 이번 재인증으로 2028년까지 총 14년간 가족친화인증기관 지위를 이

어나게 됐다. 이는 직장과 가정생활의 조화·균형을 위해 추진해온 전남도의 다양한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올해 전남에서는 한국심진흥원, 재단법인 남도장터 등 31개 기업·기관이 신규로 인증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도내 가족친화



인증 기업·기관은 총 255개로 확대됐다. 가족친화인증은 성평등가족부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자녀 출산·양육 지원 등 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기관에 부

여하는 제도다.

전남도는 자녀돌봄시간과 유연근무제 확대, 직원 심리상담실 운영, 직장어린이집의 내실 있는 운영, 다양한 교육 제공을 통한 자기개발 지원 등 직원 삶의 질 향상과 자기 진척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족친화적이고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맞춤형 복지시책을 지속 발굴하고, 직원이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 흥기월 광주시의원, 입법 평가 '3관왕'

### 지역 산업위기 대응 조례·매니페스토 좋은 조례 우수상

흥기월 광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1·사진)이 지역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가 전국 권위의 평가 기관들로부터 잇따라 호평을 받으며 '입법 평가 3관왕'을 달성했다.

흥기월 의원은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제17회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흥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광주시 지역 산업위기 대응



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최근 대우위니아 그룹 법정관리 사태

등 지역 주력 산업의 위기가 연쇄 도산과 실업 대란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존의 사후약방문식 대응을 넘어 자체 주도의 상시적인 위기 감지 및 선제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신하 기자